

‘예방접종 적극 참여 부탁’

군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동참 호소

군산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전체 인구대비 1차 접종 80%, 접종완료 75%를 넘어섰지만 지역 내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및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아직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3일 보건소에 따르면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는 2만6천여 명으로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면역형성 인구를 확대하고,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1차 접종 미접종자는 예약 없이 간편하게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기관 보유백신을 확인 후 간편하게 당일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 신청(네이버 또는 카카오)을 하거나, 의료기관 문의 후 예비명단을 올려 잔여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자동 예약되나, 본인이 2차 접종 예약일 조정을 원하는 경우 백신별 접종간격 범위 내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직접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접종간격을 넘겨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일에 접종하지 못한 2차 접종 미접종자도 접종기관 보유백신을 확인한 후 별도 예약일 변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1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통해 잔여백신을 검색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 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 범위 내에서 일정을 변경해 접종을 할 수 있다.

특히, 안전한 일상 전환을 위해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백신접종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고 의료비 지원도 확대 추진하여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군산에 체류 중인 외국인(등록, 미등록 포함)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월명체육관(예방접종센터)에서 주 2회(수,목) 현장등록 및 임시접종을 실시해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외국인 및 안전을 희망하는 미접종자는 여권 및 신분증(신분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 인적사항 및 핸드폰 번호 등)을 지참하여 현장 방문 접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속적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가 관내 귀농·귀촌인들의 재능기부 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 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내 이미지 강화 및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뿌듯한 마음으로 활동에 임했다”

군산시,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지역 화합역할 톡톡

군산시가 관내 귀농·귀촌인들의 재능기부 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 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내 이미지 강화 및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일환으로 천연 소독용품을 제작, 읍면지역 아동센터 8개소에 기부했다. 이번 재능기부는 (사)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 회원 및 지역민 7명이 군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천연비누 및 손 소독제 350개를 제작했다.

봉사에 참여한 귀촌인 이지민 씨는 “우리 귀농귀촌인들의 재능을 살려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으로 활동에 임했다”며 “재능기부와 더불어 지역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 즐거웠다”고 말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군산시는 동아리활동,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등 귀농귀촌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 귀촌인의 재능을 발굴하고 있다”며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텃새 없는 귀농귀촌 분위기 조성 및 안정 정착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 지원, 마을환경회, 귀농귀촌 융화교육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열린어린이집 44곳 선정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부모간섭 환영'

익산시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 44개소를 선정했다. 열린어린이집은 시설 개방과 부모 참여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육내용이나 건강·안전·급식·위생 등에 부모가 일상적으로 참여하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정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9월 신규신청 및 재신청 신청을 받아 개방

성, 참여성, 지속성,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점검, 선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신규 선정 24개소, 재신청 20개소 등 총 44곳의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

익산에서는 44곳을 포함 총 64개소의 열린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177개소 중 36%를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했으며 이는 전북 평균 23%를 상회한다.

시는 열린어린이집 참여율을 높이고

보육 현장의 업무부담 감소 등을 위해 신청서류 간소화에 나서고 있다.

열린어린이집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신청 시 배정, 보조교사 및 교재 교구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부모가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더욱 활성화 하고 지속적 확대하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해 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캠페인' 챌린지 동참

강임준 군산시장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9월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전자제품의 대기전력 차단을 통해 생활 속에서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는 에너지를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됐다.

시는 지명된 사람이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관한 메시지를 작성한 뒤 SNS

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된 강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권익현 부안군수, 이상천 제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를 지목했다.

강 시장은 “편리한 생활을 위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사진작가 김진석, 군산시민예술촌서 인문학 강연

군산시는 군산시민예술촌(춘장 박양기)이 '길 위의 사진가'라고 불리는 김진석 사진작가를 초청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에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전속 사진을 담당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공보특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심산사를 강사, '여의도통신'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다수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사)제주올레의 공식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정상들이 서로 악수를 하기 위해 마주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사진이 있으며, 그 외



제주도 울레길 산타이코 순례길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이 있다.

이번 인문학 강연에서는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카메라를 들고 떠난 김진석 작가의 여행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강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자 60명까지 입장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군산시민예술촌(063-443-7725)으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도심권 주차난 해소 임대형 공영주차장 조성

익산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실시해 도심 생활 밀집지역 14개소에 181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시는 도심권 내 자가상승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난항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도심권 유휴부지(나대지)에 20면 이하 소규모 주차장을 임대형으로 조성, 주차공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21개소의 신청지 중에 총 14개소(동산동, 마동, 모현동, 부송동, 송학동, 어양동, 영동동)를 선정해 임대차계약 및 지상권설정 계약을 통해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군산시는 올해 4,916톤(12만 2,900포/40kg)을 공공비축미 품목으로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량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물량이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 해품 2개 품종이며, 산물벼는 지난 9월 23일부터 매입해 10월 31일까지 진행했으며, 건조벼는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예정) 읍면동을 순회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확정하며, 중장정 산급(3만원)은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일 원활한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부관리 양곡 창고주 및 농협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공공비축 미곡 물량 배정 및 매입 요령을 설명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올해 배정된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이 다 채워져 농업인들의 시름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